

황진영 신입

여, 1997 (27세)

이메일 toriri030@gmail.com | 휴대폰 010-2875-8310 | 전화번호 010-2875-8310

주소 (34087)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학력

건양대학교

대학교(4년) 졸업

전공

시각디자인과

경력

메이킹플러스

총 8개월

희망연봉

2,800~3,000만원

직전 연봉 : 2,400 만원

포트폴리오

<https://hwang...>

간략 소개

열정과 센스를 갖춘 준비된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전문 직무 훈련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React를 비롯한 주요 프론트엔드 기술을 다룰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감각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

-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습득한 프론트엔드 개발 직무 경험
-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

나의 스킬

HTML5

JavaScript

HTML

퍼블리싱

CSS3

jQuery

React

Excel

GitHub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Adobe InDesign

학력 대학교(4년) 졸업

졸업 **건양대학교(4년제)** 시각디자인과

경력 총 8개월

2019.12 ~ 2020.07
8개월 **메이킹플러스** 사원/팀원 1년차 ·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업무
-촬영 보조

경험/활동/교육

2023.10 ~ 2024.04	그린아트컴퓨터학원 <small>교육이수내역</small>
리엑트네이티브 EXPO 활용 프론트엔드개발자 양성과정	

자격/어학/수상

2018.06	ACA Photoshop CS6 최종합격 ADOBE
2019.08	컴퓨터활용능력2급 최종합격 대한상공회의소
2019.11	그래픽기술자격(GTQ) 1급 최종합격 한국생산성본부(KPC)
2019.11	Adobe Illustrator 최종합격 ADOBE
2024.04	웹디자인기능사 최종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포트폴리오	https://hwangjinyoung14.github.io/Hello-Portfolio/
작업기간 2024.03.12~2024.05.10	

취업우대사항

고용지원금 : 대상	청년취업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성장을 위한 끝없는 여정"

시각디자인 전공 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입사하였으나 보다 나은 성취감과, 성장 목표가 뚜렷한 직종을 원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직무 기반보다 한층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찾기 위하여 곧바로 제가 하던 일을 프리랜서로 돌리고, 동시에 제 자아 성취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문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제가 몰랐던 저의 성향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더 재미있어한다.

둘째, 한 번 습득하고 마는 것이 아닌, 꾸준히 배우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셋째, 혼자 무언가를 찾아 하기 보다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여 인정받는 데에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저는 이러한 저의 성향을 토대로 개발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친구의 조언을 통해 그린아트컴퓨터학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낯설지만 그렇기에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디자인 한 작업물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구현되는 과정이 신기했고, 무엇보다 코드를 배우고 응용해가는 과정 속에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그토록 찾아헤매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겠지만, 곳곳이 목표를 향해 걸어가면서 정상을 상상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 과정마저 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성격소개

"계획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업무 수행에 있어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타고난 적응력과 융통성으로 조직에 잘 융화되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소통으로 완만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저의 이러한 유연함과 철저함은 특히 팀 작업 시 돋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팀원들에게 협력하여 조화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직접 나서서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발휘합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은 프론트엔드 직업 훈련 수강 중에도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3월에 진행한 팀 프로젝트는 잘하고자 하는 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팀원들이 각자 리뉴얼하고 싶은 페이지가 달랐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배려하는 탓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기획 및 시안을 제작해야 하는 날짜가 계속해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퍼블리싱에 들어가는 날짜마저 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인 소통 자세로 팀원마다 추구하는 주제의 공통점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중 각자 하고 싶은 시안을 기능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획해 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가장 잘 된 시안을 채택해 무리 없이 퍼블리싱을 진행하였고, 중간중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부족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보완해나갔습니다. 저의 계획적이고 빠른 의견 제시 덕분에 팀프로젝트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과 더불어 기획한 일정보다 이들을 앞당겨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다!"

가끔 빠르고 계획적인 업무 수행 추구가 타인에게 부담을 안겨줄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디자인 공모전 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독 짜여진 스케줄에 뒤처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해오지 않은 바람에 일정이 이틀 정도 미루어졌고, 결국 제출일을 넉넉하게 잡아놔던 일정이 당일 제출로 바뀌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그 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보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친구는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했었고, 자신의 작업 속도에 비해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늦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팀원들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정을 공유해 나가기만 한다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팀원의 작업 속도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마감일만을 생각해서 제 기준에 따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모전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통 이외의 다른 상황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소통과 더불어 개인의 스케줄, 작업 속도, 작업 성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일정을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유연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 경험 및 교육 활동

"기본기가 모든 언어의 완성이다."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2개월 차에 제작한 클론 코딩 사이트였습니다.

HTML이 손에 익어갈 때쯤 HTML을 꾸며주는 언어인 CSS를 기본 문법만 배우고 바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HTML 구조를 잘 짜놓았다고 생각했음에도

CSS를 짤 때 display 속성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해 엘리먼트들이 가운데로 정렬되지 않거나, 글씨가 글씨 위로 올라가거나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엘리먼트들이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도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어쩌면 CSS가 아니라 HTML의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 지닌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HTML을 공부한 책을 펼쳐 여러 번 읽고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CSS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inline, inline-block, block을 왜 그렇게 책에서도, 강사님께서도 강조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 HTML은 선정한 메뉴에 맞는 적절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내어 준비하는 것이라면, CSS는 그 재료가 지닌 고유의 맛과 특징을 알고 요리하는 것과 같다."

이 시간을 계기로 저는 어떠한 언어를 배움에 있어 기본기를 배우는 데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는 수업들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으며, 튼튼한 기본기를 갖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계획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자세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팀 프로젝트를 성정적으로 이끌어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웹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드를 효율적이고 가독성 있게 작성하여 유지 보수 및 확장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공부는 왕도가 없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최신 웹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성실하게 업데이트하여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